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부모역할만족도가 0-3세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Parental Satisfaction on Attachment Formation with Their Children

노지영 · 황혜신\*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Ji Young Noh · Hae Shin Hwang\*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related to mothers' attachment formation with their children. For this research, mothers' attachment formation with their children was examined based on the relationship involving three factors: personal variables, parenting stress, and parental satisfaction. A survey instrument was administered to 114 mothers who had 0~3 year-old children attending day care centers in Seoul.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12 version.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mothers' parental stress rated relatively low and the degree of parental satisfaction rated relatively high. Among the three variables that were measured, parental satisfaction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mothers' attachment formation. Finally, 'burden and stress of parenting', 'feelings of guilt for others taking care of their children', 'general satisfaction',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were powerful factors in explaining attachment formation.

**Keywords:** attachment formation, parenting stress, parental satisfaction

### I. 서론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영아기의 자녀와 형성하는 애착은 일차적으로 형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애착이며 이 때 형성된 애착관계의 질은 성인이 된 후에도 인간의 행동이나 관계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 영아기에 형성되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영아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언어발달, 표현능력, 문제해결능력, 호기심, 자기통제력 등과 같은 영아기 이후의 전반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e *et al.*, 1982).

그동안 애착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스트레스,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애착의 관련 변인으로 본 연구들(Hong, 2004; Heo, 2001; Kang, 2008; Moon *et al.*, 2007)과, 부모특성과 애착과의 관계, 애착과 다른 발달 특성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 연구들(Jung *et al.*, 2006; Han & Lee, 2003; Hwang & Chung, 2006; Yoon, 2002)이 대표적이다. 위의 연구들이 대부분 유아기의 애착에 관심을 가지고 애착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애착이 형성되는 영아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는 영아기에 한 번 형성된 애착은 안

\* Corresponding author: Hwang, Hae Shin  
Tel: 02-2287-5346, Fax: 02-2287-0071  
Email: hshwang@smu.ac.kr

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후의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음 세대에 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애착이 형성되는 영아기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애착이 형성되는 영아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자녀의 입장에서 애착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에서는 0-3세 자녀를 가진 어머니를 중심으로 자녀와의 애착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어머니의 영아기 자녀와의 애착형성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자녀를 낳으면서 겪게 되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고려해 보고자 하였다. 양육스트레스란 구체적 상황 하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가족체계가 직면하는 발달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스트레스이며, 어머니는 자녀양육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로감을 느끼고 생활이 자유롭지 못 한 점 등에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Kim & Kang, 1997). 양육과정에서 부모 개인의 특성과 자녀의 특성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정서와 행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겪게 되는 개인적 경험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히 출산 이후 육아의 스트레스가 많으며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영아기의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출산 후의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회복해야 하는 동시에 어린 영아를 키우면서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영아에게는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양육의 부담이 가중되는 부모에게는 힘든 시기일수도 있으며 이는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Lee(2002)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애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아동의 애착은 어머니 스트레스와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어머니가 그 사건을 스트레스로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낮아

진다고 하였다. 또한, Han(2008)은 유아의 애착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발달적응에 관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스트레스 그리고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애착은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Park(1995)은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자녀의 불안정애착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고 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주로 유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또한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자녀의 부모와의 애착에 관심이 있을 뿐, 애착형성의 주체가 되는 어머니의 애착형성에 관심을 둔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에게나 자녀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여겨, 심리적 특성인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애착과 관련된 연구결과도 다소 일관되지 않아 복잡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의 양육스트레스의 유의한 영향변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영아기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키우고 부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반면에 기쁨이나 행복 등의 긍정적인 정서적 체험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인으로 부모역할 만족도를 고려해 보고자 하였다. 부모역할은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순간부터 부모라는 위치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 수행하도록 기대되는 특정적 행동으로서, 부모역할로의 전환은 부모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과 동시에 높은 만족도를 준다.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성인, 특히 어머니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역할 개념은 다차원적이며 동시에 여러 가족원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부모에게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압박감도 수반하는 것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부모 개인의 생활양식과 나아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요인이며, 자녀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Hyun & Cho, 1994). 부모역할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어머니가 됨으로써 겪게 되는 어려움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부모됨을 통해 발생하는 어머니의 역할수행을 위기의 관점에서 정의하였다(Won, 1990).

그러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부부 관계에 있어서나 어머니 개인에게 여러 가지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발전되고 있다 (Hyun, 1993; Won, 1990).

지금까지 진행된 부모역할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가 자녀와의 애착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어머니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하는 것이 어머니와 자녀와의 애착이다.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 어머니와의 애착형성은 필수적이므로,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와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부모가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일반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부모역할을 하며 겪는 다양한 갈등을 잘 극복한다면 어머니와 자녀 간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어머니가 부모로서 만족감을 느낄수록 자녀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부모역할 만족도와 아동의 애착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지만, 양육행동에 대한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역할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심리적인 갈등이 적을수록 아동과 안정애착을 형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Han & Lee, 2003). 부모역할에 만족하며 역할을 수행하는 어머니는 자녀와의 애착관계가 안정적일 것이며, 그와 반대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부모역할을 감당하는 어머니는 애착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Park, 2004; Park, 2008). 한편, Kim(199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직업 및 어머니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자녀와의 긍정적인 애착형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듯 연구결과들이 차이가 있으며, 부모역할 만족도와 자녀와의 애착형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이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자녀의 존재는 어머니에게 심리적 사회적 안정감을 주고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감과 가사노동의 증가는 어머니로 하여금 개인생활을 가질만한 여유를 주지 않고 정체감 상실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런 부모-자녀 관계의 중심인물인 어머니가 부모역할을 만족하게 느끼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동기 유발적이고, 관심을 보이며, 애정을 많이 보이는 등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지만, 양

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요구에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거부적인 태도를 보여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이처럼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만족도가 아동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애착형성을 예언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애착형성은 아동의 가족 경험과 사회-정서 발달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이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양육자의 행동과 유아기 이후의 아동의 애착간의 관계를 연구해왔다. 현재 아동의 애착형성과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이나 양육 태도에 관련된 연구들만 있을 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부모역할만족도 같은 심리적, 정서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애착형성 연구에서 아동과 양육자의 양육행동에만 초점을 두던 것에서 벗어나 양육자의 심리적, 정서적인 측면까지 고려하고자 한다. 또한, 부모역할에 대한 지각을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으로만 보기보다는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인 차원에서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여러 변인 중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부모역할만족도가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애착이 형성되는 0~3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역할만족도가 영아기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알아봄으로써 효과적인 아동발달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상의 연구목적 및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0-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 만족도, 자녀와의 애착형성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2)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 만족도 및 0-3세 자녀와의 애착형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3)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 만족도가 0-3세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0~3세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 114명을 설문조사의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자녀의 연령을 0~3세로 선정한 이유는 아동의 발달 특성상 애착형성의 결정적 시기로, 결정적 시기를 중심으로 초기애착의 형성이후에도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는 계속되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0~3세의 발달 특성상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머니가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하고, 신체활동이 활발해져 활동량이 증가할 시기이며 호기심이 많고 탐구심이 많아지는 시기(Kwon *et al.*, 2005)로 더욱 많은 감독이 요구되어 어머니에게 있어 부모역할 요구가 높은 시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 대상의 연령은 30세 이하가 21명(18.4%), 31-35세가 58

명(50.9%), 36-40세가 29명(25.4%), 41세 이상이 6명(5.3%)으로 대부분 30대의 젊은 여성들이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1명(0.9%), 고졸 16명(14%), 2년제 대학 졸업 28명(24.6%), 4년제 대학 졸업 53명(46.5%), 대학원이상 16명(14%)로 4년제 대학 졸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취업유무의 경우 취업모 76명(66.7%), 비취업모 38명(33.3%)으로 맞벌이 가족의 비율이 높았다. 월 평균 가계소득은 200만원 미만인 8명(7.0%), 200-300만원 미만인 24명(21.1%), 300-400만원 미만인 28명(24.6%), 400-500만원 미만인 22명(19.3%),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32명(28.1%)으로 500만원 이상의 소득자가 많아, 조사 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연령은 1세가 36명(31.6%), 2세가 52명(45.6%), 3세가 26명(22.8%)으로 2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57명(50%), 여아가 57명(50%)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114)

	Variables	Frequencies	Percentage
Age	Less than 30	21	18.4
	31-35	58	50.9
	36-40	29	25.4
	More than 41	6	5.3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17	14.9
	Two-Year College Graduate	28	24.6
	Four-Year College Graduate	53	46.5
	Graduate School	16	14.0
Occupancy	Yes	76	66.7
	No	38	33.3
Monthly Income	Less than 3 million	31	28.1
	3-3.99 million	28	24.6
	4-4.99 million	22	19.3
	More than 5 million	32	28.1
Children's Age	1 Year-old	36	31.6
	2 Years-old	52	45.6
	3 Years-old	26	22.8
Children's Gender	Male	57	50.0
	Female	57	50.0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영아기 자녀와의 애착

영아기 자녀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Hwang(2005)의 ‘어머니 애착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영아기 1개월부터 사용가능하며, 우리나라 어머니의 전통적인 문화적 배경과 정서적 문화에 기반을 두고 우리나라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형성을 측정하고자 개발되었다. 어머니의 애착형성을 총 8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요인은 긍정적 정서(예; 내 아이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 진다) 11문항, 2요인은 접촉추구-접촉을 즐김(예; 나는 내 아이와 마주보며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 7문항, 3요인은 자기희생적 온정(예; 내 기분이 안 좋아도 내 아이에게는 다정하고 부드럽게 대한다) 9문항, 4요인은 근접 추구-분리불안(예;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아이생각에 가능한 빨리 오려고 노력한다) 4문항, 5요인은 보호(예; 아이가 잠에 들었거나 혼자 놀이 할 때에도 볼 수 있는 거리에 두고 자주 살펴본다) 5문항, 6요인은 결속-일치성(예; 나는 내 아이의 행동이나 반응을 말로 표현해 준다) 5문항, 7요인은 냉담(예; 솔직히 나는 내 아이에 대해 별 느낌이 없다) 4문항, 8요인은 기대감(예; 아이 양육은 힘들지만 가장 보람있는 일이다) 3문항으로 총 8개의 요인을 통해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형성을 파악하였다. 전반적 경향을 살펴는 데는 애착의 하위요인별로 보았으며, 회귀분석 시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애착의 총합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본 애착척도는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형성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단, ‘냉담’의 경우는 점수가 낮을수록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애착형성이 긍정적임을 의미하며, 분석 시 역코딩 하여 재점수화 하였다.

Hwang(2005)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와 반분신뢰도, 그리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등의 모든 신뢰도 검사결과는 .88~.94로 전반적 높았으며, 특히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선 전체 신뢰도 계수( $\alpha$ )는 .92이며 하위요인별로 긍정적 정서 신뢰도 계수( $\alpha$ )는 .91, 접촉추구(접촉을 즐김) 신뢰도 계수( $\alpha$ )는 .90, 자기희생적 온정 신뢰도 계수( $\alpha$ )는 .70, 근접추구(분리불안) 신뢰도 계수( $\alpha$ )는 .85, 보호 신뢰도 계수( $\alpha$ )는 .84, 결속(일치성) 신뢰도 계수( $\alpha$ )는 .79, 냉담 신뢰도 계수( $\alpha$ )는 .72, 기대감 신뢰도 계수( $\alpha$ )는 .81로 나

타났다.

2)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Kim & Kang(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맞게 문항을 구성하여 만든 것으로 선행연구 고찰 및 취업모와의 면접방법과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구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의 Parenting Distress요인과 Cri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 및 Mann과 Thornberg(1987)의 Maternal Guilt Scale(MGS)에서 추출되었다. Kim과 Kang(1997)은 척도를 구성하는 78문항 중 32문항으로 재구성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의 하위요인으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상 생활에 직면하는 것을 반영하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예;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잠자는 시간도 불규칙하다)’ 12문항,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인지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예; 아이에게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12문항,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타인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반영한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예;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얼굴이나 옷이나 기저귀가 젖어있어서 화가 난 적이 있다)’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alpha$ )는 .81이며 하위요인별로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신뢰도 계수( $\alpha$ )는 .87,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신뢰도 계수( $\alpha$ )는 .81,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신뢰도 계수( $\alpha$ )는 .74 로 나타났다.

3) 부모역할 만족도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는 Guidubaldi와 Cleminshaw(1989)가 개발한 CGPSS(The Cleminshaw-Guidubaldi Parent Satisfaction Scale)를 Hyun과 Cho(1994)의 연구에서 우리문화에 맞게 수정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48개의 문항 중 자녀의 지지(6문항), 부모역할갈등(1문항), 부모-자녀관계(5문항)는 영아기 자

녀를 둔 어머니에게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문항을 제외한 3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자녀를 통해 느끼는 기쁨이나 만족감, 긍정적인 정서 등을 나타내는 ‘일반적 만족도(예; 나는 아이가 있다는 그 자체에 큰 만족을 느낀다)’ 11문항, 부모-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나 관계를 나타내는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예; 아이와 함께 있으면 대부분 즐겁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낸다)’ 10문항, 배우자의 자녀 양육행동이나 지원에 관한 ‘배우자의 지지(예; 남편은 아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와 함께 의논하는 편이어서 기쁘다)’ 10문항,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역할을 수행해 나가면서 느끼게 되는 어려움이나 문제 등을 반영하는 ‘부모역할 갈등(예; 나는 아이로 인해 신경이 날카로워졌거나,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 11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부모역할 갈등’의 경우는 점수가 낮을수록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분석 시 역코딩 하여 재점수화 하였다.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alpha$ )는 .91이며 하위요인별로 일반적 만족도 신뢰도 계수( $\alpha$ )는 .84,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신뢰도 계수( $\alpha$ )는 .72, 배우자지지 만족도 신뢰도 계수( $\alpha$ )는 .95, 부모역할갈등 만족도 신뢰도 계수( $\alpha$ )는 .82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로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2010년 10월 1~28일 동안에 이루어졌다. 10월 1일에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된 어린이집에서 시설장과 교사들의 협조를 받아 0~3세 원아의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답입교사를 통해 영아의 가정으로 질문지를 보내서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고 응답한 질문지는 답입교사가 취합한 후에 연구자가 수거하였다. 10월 28일까지 수거된 질문지를 분석대상으로 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dows 12.0의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양육 스트레스, 부모역할 만족도, 애착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알아보았다. 개인적 특성, 양육 스트레스, 부모역할 만족도와 애착형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개인적 특성, 양육 스트레

스, 부모역할 만족도가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분석

### 1. 변수의 일반적 경향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만족도, 자녀와의 애착형성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 본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전체 평균이 2.84로 평균 수준이나 하위영역별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 영역을 살펴보면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의 평균이 3.1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M=2.75),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M=2.60)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의 전체 문항별 평균은 3.36으로 평균 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역할 만족도의 각 영역을 살펴보면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역할을 수행해 나가면서 느끼게 되는 어려움이나 문제 등을 반영하는 ‘부모역할 갈등(M=3.72, 역코딩)’을 가장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녀를 통해 느끼는 기쁨이나 만족감,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일반적 만족도’가 평균 3.64로 높게 나타났고, 부모-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나 관계를 나타내는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M=3.07)’, 배우자의 자녀 양육행동이나 지원에 관한 ‘배우자의 지지(M=3.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애착형성의 전체 문항별 평균은 4.32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의 각 영역을 살펴보면 ‘공정적 정서(M=4.6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접촉추구(M=4.62)’, ‘결속(M=4.31)’, ‘냉담(역)(M=4.25)’, ‘기대감(M=4.22)’, ‘보호(M=4.20)’, ‘희생적 온정(M=4.17)’, ‘근접추구(M=4.11)’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개인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만족도와 자녀와의 애착형성간의 관계

0-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만족도 및 자녀와의 애착형성 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Parenting Stress, Parental Satisfaction, and Attachment Formation

Variable	Items	Mean	SD
Parenting Stress	General Stress	3.18	.64
	Burden and Distress of Parenting Role	2.75	.56
	Feelings of Guilty of Other's Care	2.60	.65
	Total	2.84	.52
Parental Satisfaction	General Satisfaction	3.64	.34
	Relational Satisfaction with Their Children	3.07	.45
	Partners' Support	3.01	.66
	Conflict of Parenting Roles(Reverse)	3.72	.49
	Total	3.36	.36
Attachment Formation	Positive Emotion	4.69	.36
	Pursuit of Contact	4.62	.46
	Compassion of Self-Sacrifice	4.17	.55
	Pursuit of Proximity	4.11	.69
	Protection	4.20	.60
	Bonding	4.31	.51
	Coolness(Reverse)	4.25	.57
	Expectation	4.22	.68
Total	4.32	.39	

〈Table 3〉 Correlation Matrix Between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11	1												
3	.20*	.01	1											
4	.30**	.12	.00	1										
5	-.18	-.21*	-.07	-.30**	1									
6	.26**	.38**	.08	.23*	-.47**	1								
7	-.22*	.09	-.10	-.14	.14	-.02	1							
8	-.16	.09	-.08	-.07	.15	-.09	.72**	1						
9	-.16	-.15	.00	-.16	.05	-.11	.49**	.43**	1					
10	.03	-.08	-.01	.06	-.11	.11	-.14	-.24*	.05	1				
11	.13	-.18	.13	-.09	.04	.06	-.32**	-.42**	-.11	.47**	1			
12	.05	-.03	.03	.07	-.18	.18	-.27**	-.34**	-.34**	.32**	.46**	1		
13	.04	-.03	.16	.18	-.04	.11	-.58**	-.62**	-.32**	.29**	.37**	.30**	1	
14	-.05	-.13	.01	-.01	-.02	-.01	.00	-.00	.26**	.58**	.39**	.23*	-.13	1

\* $p < .05$  \*\* $p < .01$

1. Age, 2. Education Level, 3. Children's Gender, 4. Children's Age, 5. Occupancy, 6. Monthly Income, 7. General Stress, 8. Burden and Distress of Parent, 9. Guilty of Other's Care, 10. General Satisfaction, 11. Relational Satisfaction with Their Children, 12. Partners' Support, 13. Conflict of Parenting Role(Reverse), 14. Attachment Formation

우선 개인적 변인과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를 보면, 연령과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간에 부적상관( $r = -.22, p < .05$ )이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상적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와 부모역할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상적 양육스트레스는 일반적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만족도 하위요인과 부적 상관( $r = -.27 \sim -.58, p < .01$ )이 나타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와 배우자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부모역할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는 부모역할 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과 부적상관( $r = -.24 \sim -.62, p < .01$ )이 나타나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과 디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부모역할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은 부모역할 만족도 중 배우자지지( $r = -.34, p < .01$ )와 부모역할갈등( $r = -.32, p < .01$ )과 부적상관이 나타나,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클수록 배우자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부모역할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애착형성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보면,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과 애착형성 간에는 정적상관( $r = .26, p < .01$ )이 나타나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클수록 긍정적인 애착형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애착형성과 부모역할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적 만족도( $r = .58, p < .01$ ),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r = .39, p < .01$ ) 및 배우자지지( $r = .23, p < .05$ )와 애착형성 간에는 정적상관이 나타나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애착형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개인적 변인은 자녀와의 애착형성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만족도가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설정한 모형의 가정이 적절한지 보기 위해 Durbin-Watson 계수 산출결과 1.971로 2에 근접하고 있어 잔차항 간의 체계적인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선성의 존재여부 파악을 위한 허용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산출하였다. 허용도의 값이 .1이하이거나 분산팽창요인의

값이 10이상이면 공선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허용도의 값은 모두 .383~.961로 .1이상 이었고, 분산팽창요인의 값도 1.040~ 2.522로 모두 10 이하였으므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과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녀와의 애착형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델 I에서는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았으며 설명력은 2%로 나타났다. 모델 II에서는 양육스트레스 변인을 추가하여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 전체 설명력은 10%가 되었으며 모델 I에 비해 8%가 증가하여 양육스트레스는 애착 변량의 8%를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II에서는 부모역할만족도 변인을 추가하여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 전체 설명력은 46%가 되었으며 모델 II에 비해 36%가 증가하여 부모역할만족도는 자녀와의 애착형성 변량의 36%를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녀와의 애착형성을 가장 많이 설명하여 주는 변수는 부모역할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양육스트레스,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모델 III에서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군의 하위변인 중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 변인 중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p < .05$ )’와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p < .05$ )’이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양육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클수록 자녀와의 애착형성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역할만족도 중 ‘일반적 만족도( $p < .001$ )’와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p < .05$ )’가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일반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애착형성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상의 독립변인 중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일반적 만족도( $\beta = .459$ )’이며,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beta = .263$ )’,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beta = .242$ )’,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beta = .023$ )’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on Attachment Formation

Predictors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General Characteristics	Age <sup>1)</sup>	-.007	-.015	-.001	-.002	-.002	-.005
	Education Level <sup>2)</sup>	-.070	-.165	-.048	-.113	-.006	-.014
	Children's Gender <sup>3)</sup>	.011	.015	.001	.002	-.011	-.014
	Children's Age	.009	.018	.024	.046	.027	.051
	Occupancy <sup>4)</sup>	-.002	-.002	.019	.024	.008	.010
	Monthly Income <sup>5)</sup>	.025	.082	.030	.098	-.008	-.028
Parenting Stress	General Stress			-.065	-.108	-.041	-.067
	Burden and Stress of Parent Role			-.005	.007	.181	.263*
	Guilty of Other's Care			.190	.319**	.144	.242*
Parental Satisfaction	General Satisfaction					.528	.459***
	Relational Satisfaction with Their Children					.197	.023*
	Partners' Support					.056	.095
	Conflict of Parenting Roles					.055	.068
F		.416		1.171		6.031***	
R <sup>2</sup>		.024		.098		.457	
Adj R <sup>2</sup>		-.034		.014		.382	
Change in R <sup>2</sup>				.074		.359	

\* $p < .05$  \*\* $p < .01$  \*\*\* $p < .001$

1) dummy variable: 'less than 30' as 1, '31-35' as 2, '36-40' as 3, 'more than 41' as 4

2) dummy variable: 'High School Graduate' as 1, 'Two-Year College Graduate' as 2, 'Four-Year College Graduate' as 3, 'Graduate School' as 4

3) dummy variable: 'Boy' as 1, 'Girl' as 2

4) dummy variable: 'Yes' as 1, 'No' as 2

5) dummy variable: 'Less than 3 million' as 1, '3-3.9 million' as 2, '4-4.9 million' as 3, 'More than 5 million' as 4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0-3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들의 양육스트레스 및 부모역할만족도가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아동발달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어

머니의 개인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만족도, 및 영아기 자녀와의 애착형성 간에 상관관계분석을 하고,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영아기 자녀와의 애착형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과 논의를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역할 만족도, 애착형성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하위영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영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이나 디스트레스 및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보다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인 어머니는 0-3세 사이의 영아를 키우고 있으며, 이 시기가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자녀 양육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어려움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일상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영아기의 부모들은 다른 발달단계의 부모들에 비해 실제 일상에서 영아를 키우면서 자녀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 신체적 어려움 등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타인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린 영아기에는 보육기관에 보내던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기보다는 직접 돌보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특성을 알아 본 Kim과 Cho(2000)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경우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 순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대상 아동의 연령에 의한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영아를 키우는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위한 일상적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부모역할 만족도는 보통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 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부모역할에 대한 갈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Kim & Moon, 2006; Song & Song, 200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직 영아기의 자녀를 키우고 있어 상대적으로 기본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주 역할이므로 다른 연령대의 자녀들과는 달리 부모역할에 대한 갈등이나 혼란은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의 영아기 자녀와의 애착형성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변인별로 살펴보면, ‘긍정적 정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접촉추구’, ‘결속’, ‘기대감’, ‘보호’, ‘희생적 온정’, ‘근접추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냉담’은 다른 변인보다 낮게 나타났다. 냉담의 문항은 부정적 개념으로서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이며, 애착이 높은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영아기의 자녀에 대한 애착형성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개인적 변인,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 만족도 및 자녀와의 애착형성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들은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은 어머니보다는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됨에 대한 준비나 마음가짐이 달라서이기도 하며, 본 연구에서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부모의 연령이 많을 경우는 영아기의 자녀가 첫째가 아니라 둘째나 셋째일 가능성이 있어,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이 많아 상대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Kim과 Cho(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나 Kim과 Cho(2000)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으나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상관관계만을 살펴보아야 다른 결과를 보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와 부모역할만족도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부모역할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Moon, 2001; Noh, 200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부모역할 만족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배우자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요인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일상적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과 디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많이 느낄수록 배우자 지지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배우자로부터 물리적,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기대하는데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양육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 및 부모역할만족도와 자녀와의 애착형성 간의 관계는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다음의 회귀분석의 인과관계의 결과와도 거의 일치하게 나타나 뒷부분에서 설명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개인적 변인, 양육스트레스, 및 부모역

할 만족도가 0-3세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개인적 변인은 자녀와의 애착형성을 설명하여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어머니들은 연령이나 교육 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상관없이 비슷한 양상의 애착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애착형성은 어느 정도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변수와는 상관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오히려 부모의 심리적 변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애착형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하위영역 중 일상적 스트레스는 설명력이 없었으나,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은 영아기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부모들이 영아를 키우면서 일상적 어려움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지만 애착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오히려 심리적 변인인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향력의 양상을 살펴보면,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많이 느낄수록 자녀와 긍정적인 애착형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 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그에 따른 반응으로 아동의 발달과 관련된 양육 행동이나 적극적 참여, 자율 격려 등의 양육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Ahn, 2000)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느낄수록 오히려 영아기의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여 긍정적인 애착형성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과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어머니가 느끼는 정서적 불안과 심리적 부담이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반영되어 자녀와의 긍정적인 애착형성을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인다. 특히 자녀와의 애착이 형성되는 영아기에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나 자녀출산의 기쁨이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는 자녀와의 애착형성을 설명하여 주는 의미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역할에 대한 일반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또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와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자신의 역할에 대한 심리적인 만족감이 클수록 자녀와 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

하고, 어머니가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일반적인 만족감을 느낄수록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어머니와 자녀의 긍정적인 애착형성을 위해서는 역할만족도가 우선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부모역할 만족도는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시키는 완충작용을 하며, 일상생활에서도 어머니에게 소속감과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인정, 칭찬, 격려 등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아질 때 어머니는 아동의 행동을 그대로 바라보고,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심리적 여유를 갖게 되며, 이로 인하여 어머니와 아동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안정적인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Moon(2001)과 Doh와 Kim(199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써 부모로서의 역할에 만족할수록 부모는 자녀들에게 온정적으로 대하며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부모역할 만족도가 가장 영향력있는 설명군으로 나타났다. 다른 어떤 변인군 보다도 부모가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느끼는 심리적 위안이나 만족도가 자녀와의 긍정적인 애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와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여 자녀가 안정적인 애착을 가지게 될 수 있도록 부모역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도 부모역할 만족도의 하위변인인 일반적 만족도가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영아기에 자녀를 둔 부모는 책임감과 의무가 많은 시기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도 자녀와의 긍정적인 애착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애착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인 영아기에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만족도가 긍정적인 애착에 영향을 주며, 이 시기에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자녀와의 긍정적인 애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대하여 어머니를 대상으로 횡단연구를 실시하였지만, 애착의 특성을 종단연구를 통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영아기와 발달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유아기의 애착 특성이 아동기에 이

르기까지 안정된 애착으로 확고해지는 발달적 과정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종단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스트레스가 자녀와의 애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르리라 예상하므로 발달 단계별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만을 제한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변인을 포함한 연구가 요구된다. 아동의 애착행동의 특성상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자신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뿐만 아니라 확장된 사회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환경 변인의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애착이 형성되는 0-3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부모역할 만족도와 자녀의 애착형성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가족 내에서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더 나아가 앞으로 본 연구 결과가 어머니의 정서성 향상 프로그램, 긍정적 애착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양육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에 개발 적용되어 자녀와의 긍정적 애착형성을 돕고 아동발달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초적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역할 만족도가 아동의 애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애착의 재형성 및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예방, 또는 경감하고 부모역할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과 보다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는 육아상담, 육아교육, 그리고 부모역할 훈련과 같은 다양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따르는 스트레스 대처기술을 강화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만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애착형성,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만족도

## REFERENCES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hn, J. Y. (2000).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Bang, K. S. (2000). *Effects of maternal role education program on the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infa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Bee, H. L., Barnard, K. E., Eyres, S. J., Gray, C. A., Hammond, M. A., Spietz, A.L., Snyder, L., & Clark, B. (1982). Prediction of IQ and language skill from prenatal status, child performance, family characteristics,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3, 1134-1156.
- Cri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16, 1628-1637.
- Doh, H. S., & Kim, J. S. (1997). Social Support , Parent - Satisfaction ,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6), 127-135.
- Guidubaldi, J., & Cleminshaw, H. K.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leminshaws-Guidubaldi parent-satisfaction scale, In M. J. Fine(ED.), *The Secon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Contemporary Perspectives(p257-277)*. San Diego:Academic Hall.
- Han, J. H., & Lee, Y. H. (2003).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role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s with children's patterns of attachment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0(2), 119-149.
- Han, T. S. (2008). *The effects of moth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motionality, marital conflicts and parenting-related variables on preschool attach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Kyonggi University.
- Heo, M. S.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s and child attachment security to parent*.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Hong, M. R. (2004). *Mother-child interaction during problem solving and related variable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Hwang, H. J. (2005). *A study on mother's attachment to her infant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maternal attachment invent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 Hwang, H. J., & Chung, O. B (2006). A study on mother's attachment to her infant and related factor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3(4), 95-115.
- Hyun, O. K. (1993). *Mothers' parental satisfaction and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kuk University.
- Hyun, O. K., & Cho, B. H. (1994). Development of the parent-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2(1), 103-117.
- Jung, S. H., Jin, M. K., Jung, U. S., & Lim, H. D. (2006). A stud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nd related variable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3(3), 21-37.
- Kang, O. S. (2008).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ttachment type, parenting stress and young children's daily stress*.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 Kim, J. H., & Moon, H. J. (2006). Variables related to the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1), 115-129.
- Kim, K. H., & Cho, B. H. (2000). An ecological approach to analysis of variables in the parenting stress of the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1(4), 35-50.
- Kim, K. H., & Kang, H. K. (1997).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5), 141-150.
- Kim, S. R. (1992). *Early day care and the family as predictors of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Kwon, M. K., Kwon, H. K., Moon, H. J., Sung, M. Y., Shin, Y. L., Ahn, S. H., Ahn, H. J., Lee, K. O., Chun, H. Y., Han, Y. M., Han, Y. J., & Hwang, H. S. (2005). *Child Development*. Seoul: Changji Sa.
- Lee, J. H. (1994). *Attachment security and related variables between employed mothers an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Lee, K. H. (2002). A developmental pathway of child attachment security through maternal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1(4), 153-171.
- Mann, M. B., & Thornberg, K. R. (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s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 451-464.
- Min, S. W. (2010).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child-rearing stress on the child-rearing attitude : focused on the parents with their children attending children's nursing homes in dongdaemun-gu, Seoul*.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 Moon, H. J. (2001). A Study of Parental Satisfaction and Child - Rearing Practic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1), 205-219.
- Moon, S. K., Lee, M. Y., & Park, S. H. (2007). The effects of parental childhood attachment, young children's temperament on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49(1), 251-268.
- Noh, A. M. (2008). *The influences of parenting stress and self-differentiation on parental role satisfaction in mothers with infant*.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Park, E. I. (1995). *Attachment type between infant-mothers and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Park, E. K. (2004). *The study on the primary factors that*

- effect on making attachment of the working couple and infancy.* Master's thesis. Mokwon University.
- Park, J. H. (2008).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attachment to their young children and satisfaction with the parental role, and the female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 (EQ).*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 Song, S. M., & Song, J. S. (2007). A Study on Parenting Beliefs, Parental Satisfaction, and Child Rearing Stress. *Korean Journal of Humand Ecology*, 16(5), 933-944.
- Won, J. S. (1990). *An empirical study on transition to parenthoo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Yoon, J. H. (2002).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 child attachment, and social adjustment.*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접 수 일 : 2011. 11. 23.

수정완료일 : 2012. 01. 09.

게재확정일 : 2012. 01. 09.